신앙 성장 시리즈 51

멈추지 않는 생각들 속에서의 탈출

글 / YMI TODAY 제공

한국오늘의양식사

발간사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 발행해 오던 신앙성장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경적 교훈을 받아 왔습니다. 충실하게 사용해 오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호부터는 그동안 어른 세대를 위한 도움은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세대의 지도자가 될 오늘의 청소년들의 상황에 조금 더 가까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내용을 담아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의 손에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과거 언제 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널리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상복 목사

topic 1

도와주세요!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I can't stop overthinking

떨리는 손으로 아이폰을 꼭 쥐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웹엠디(WebMD). 접속 완료.

몇 초 후 나는 뇌종양의 증상에 대해 읽고 있다.

두통? 있어.

시력장애? 맞아.

이것 봐, 주요 증상이 두 개나 있네.

그런데 다른 증상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두 개나 있잖아. 병원에 가봐야 해. 진짜 뇌종양이면 어떻게 해?

시력장애 증상이 몇 주나 계속되자 나는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사망선고 받을 일만 남았겠구나……하고 확신에 찬 상태였다. 이제 남

은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정말로 뇌종양이면 그땐 어쩌지? 그만.

시신경을 들여다보면…… 그만 좀 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검사는 제발 다 해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한 시간에 걸쳐 각종 검사와 영상 촬영을 끝내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걱정하느라 쓴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인데, 알고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과 시력장애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의사는 "눈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스트레스요?" 휴지에 코를 풀며 되물었다.

"네, 좀 쉬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는 휴지를 좀 더 건네며 말했다. 그러고는 내가 계속 잊으려 노력해도 잘 안될 일을 충고했다.

"그렇게 계속 뭔가 잘못된 것을 찾다가는, 진짜로

찾는 수가 있어요."

그는 내가 진료받으러 온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없는 것도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게 내버려두면 그 두려움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듯했다.

1. 모든 것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나처럼 안과의사 진료실에서 공황증세를 겪는 유쾌한 경험을 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나 직장생활, 재정문제, 아니면 삶의 여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적은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더 걱정하도록 만든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몇 주 동안 두려움에 눌려 살았고

결국에는 의사 진료까지 예약하게 되었다.

파괴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해 한동안 고민하다가 나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조절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가 많고 또 항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부정적인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를 알게 되자, 무언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2. 우리 마음속의 상상을 되찾는 방법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상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될 모든 훌륭하고 획기적인 창의적 생각들이 생겨나는 곳이다. 또한 상상력은 영감을 자라나게 하는 곳이며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주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상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에베소서 6:12). 우리의 적은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할 것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고린도후서 10:3-5).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에베소서 2:10).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예레미야 29:11, 히브리서 13:5, 베드로전서 5:6-7).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기만 하면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내 말을 들어보라. 우리 모두는 마음속의 공허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한다.

거듭된 두려움이 갑작스레 엄습해왔던 일을 경험하며 터득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자신과의 대화 쪽으로 가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도 두려움도 자신과의 대화에서부터 나온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들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한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인 해결책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경의 지혜로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부정적인 자문자답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의 푯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 나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나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문제들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싶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알고 있다. 그

래서 나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늘 되새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히브리서 13:5, 예레미야 31:3, 예레미야 29:11).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topic 2

불면의 밤을 경험하고

WHEN I COULDN'T SLEEP AT NIGHT

킴 청 (중국)

어느 주일날 밤, 독한 감기에 걸려 골골하던 나는 밤 9시부터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서둘러 잘 준비를 하고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그때 난 한 달 넘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터라 수면도 보충할 겸 잘됐다 싶어 얼른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없이 뒤척였다. 몸은 그

렇게 피곤한데,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말똥말똥해졌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고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봐도 밀려드는 걱정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불안은 이내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갔다.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빨리 쉬어둬야 해! 이렇게 잠을 설치면 내일 너무 힘들어, 안 돼!!!

수없이 뒤척이다 일어나서 시계를 봤다. 1시였다. 더 큰 불안이 엄습했다.

다시 잠들려고 애를 썼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또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다. 거의 2시였다.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난 한 번도 잠을 못 자서 고생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머릿속 뇌세포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다. 몸은 거의 탈진상태인데, 내 의식은 휴면을 거부하며 버팅기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긴 시간 울며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건가? 의문이 들었다. 감기 때문에 탈진한 데다, 잠에 들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으로 숨 쉬는 것마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왜 절 버리셨나요? 누워서 하염없이 울었다.

한참이 지나고 핸드폰을 보니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위챗 메신저 앱을 켜고 상태 메시지를 바꿨다. "잠은 불면의 밤을 경험한 자만 아는 선물."

그날 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이 축복이란 생각을 했다.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던 그 불면의 밤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1. 모든 일에 감사한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잠의 소중함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날마다 잘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불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장거리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작은 거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일삼았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걸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건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연민과 원망에 빠져든다.

2.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경험은 또한 내 안에 있는 통제에 대한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다. 그날 밤, 다음 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피부관리 겸 일찍 잠자리에 들면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했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잊어버렸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마태복음 10:29-30)

그 일로 나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 일과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에 이

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

우상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 섬기는 우상 중 하나가 "통제권"이라고 지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면의 밤을 통해, 내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통제의 죄"를 드러내셨다.

3.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한잠도 잘 수 없어 괴로워 울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침묵하시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더 오랫동안 울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분명히 쓰여있다.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7).

감정만 의지하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내가 느낄 때만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다. 약속하신 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너무 큰 아픔 때문에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성경 속 약속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내 감정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

그 후로 그날처럼 한숨도 못 자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은 잠이 오지 않아 고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황하진 않는다. 잠이 오든 안 오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알뜰히 살피신다. 잠이 잘 오면 그분께 감사한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그분께 기도한다. 단 한번의 불면의 밤을 통해 나는

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그 사건은 내 삶에 더 없는 축복이 되었다.

topic 3

예수님은 단지 죽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

JESUS DIDN'T JUST COME TO DIE

조안나 호어

고난주간이 막 시작된 즈음이었다. 그는 의기소침해져서 말수가 줄었고, 눈에 띄게 무기력해 보였다. 가끔은 기분이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긴 했어도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침울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찬찬히 묻자, 꼭 집어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했다. 별일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도 신나지 않다고 했다.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래도 번아웃(탈진)이 온 거 같아." 내 동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몇 마디 조언을 건네고 기도를 해주었다. 그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같은 날,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다. 갑작스런 장인어른 소천 소식에 친구 한 명이 급하게 고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몇 일 뒤에는 다른 친구의 할머니께서 후두암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다.

성금요일이 있는 주였지만, 다른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5년 전 성금요일 주간,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날이 떠올랐다.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그때,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지금이 고난주간이든 아니든 달라지는 건 없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다. 때를 가려야 한다

고 누가 그러던가?

고난주간이든 아니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눈물짓고, 힘겹게 발버둥치고, 죽어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이 특별한 이유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지금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할 때, 예수께서 단지 죽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곤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다.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무슨 말인가? 언제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또 찾아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아는 이가 계셔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직접 겪으셨다.

병원 검사 결과를 듣고 앞이 막막할 때, 자신이 머지않아 겪게 될 너무나 잔혹한 죽음을 하루하루 절절히 인식하며 사셨을 예수님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16:21)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겟세마네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예수님을 기억하자. (누가복음 22:42)

친구가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기억하자. (누가복음 22:3-6)

모함을 당하고, 부당하게 욕을 먹을 때,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억울하게 고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누가복음 23:2, 10)

가진 걸 모두 잃었을 때, 망가진 세상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빌립보서 2:6-8)

권리를 침해당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빌립보서 2:6-8)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사야 53:4-5)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27:46)

그분을 기억하자.

우리가 살길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사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사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는 이번 성금요일,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모두 아시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란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4:14-16)

조안나 호어(Joanna Hor)

조안나는, '인생은 짧고, 장기적인 인생 플랜은 없어도 좋다'는 신조의 소유자다. 그는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안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해를 지내며 그에게 바뀐 것도 많지만, 그의 감자요리 사랑은 변함이 없다.

topic 4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다를 때

WHEN GOD GETS THE TIMING WRONG

크리슬 강가딘,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잡고 24살 전에는 결혼할 거야!" 여고시절 친한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데 친구 하나가 자신 있게 말했다.

또 한 친구가 끼어들면서 기정사실인 양 "나는 26살에 할 거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한 명도 성숙한 30살쯤에는 미래의 남편과 함께 두 아이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차 말했다.

그럼 나는 어땠나? 내 기억으론 하나님께서 언제 남편을 주시든지 행복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 같다. 그냥 20대에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15년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늦어도 서

른 살까지는 모두가 결혼을 하니까.

스포 있음: 하지만 우리 몇몇에게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꿈과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의 그 십 대 소녀들은 어느덧 우리 할머니 대에서는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은 30대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내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꿈은 우리가 계획한 시간대에 꼭 맞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서른 살 초반인 내 친구 한 명은 기다림에 지쳤다면서 "40살까지 노처녀로 남아 있고 싶지 않아."라며 반 농담조로 투덜대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 마음도 잘 관리해 왔고, 목적을 따라 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가족과 친구 관계도 잘 유지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체시계가 울리는 경종을 못 듣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다.

그 친구는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감이 꼭 필

요한 건지 헷갈려 했다. 그녀에게 잘 대해주는 좋은 남자라면 훌륭한 배우자와 부모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환멸감에 차 있던 친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시간을 계속 신뢰하라고 설득할 때 나는 어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20대는 잘못된 관계로 얽혔던 것을 하늘은 아신다. 정신상담으로 탕진한 내 영수증이 바로 그 증거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당신도 소망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깜빡 졸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한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겠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없어 비통해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불임이었던 그를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할 때마다 한나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

는 상상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한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드리며 간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좀처럼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비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매년 한나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그날 한나는 식욕을 잃었다. 한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편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물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한나는 음식을 먹고는 다시 기도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낙심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였다.

하루는 그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다.

어느 날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남편과 잠자리를 한 후 임신을 한 것이다. 드디어 한나가 엄마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이가 젖을 떼자, 아이가 제사장 밑에서 계속 섬기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다. 이 뜻은 한나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일 년에 한 번만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깐만 이건 무슨 말인가? 자신이 기르지도 못할 아이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신이 바로 읽은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소원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린 것이다.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탄생시켰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스리는 동안 섬기던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

은 후에 5명의 아이들을 더 낳았다.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한나는 매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좌절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계신다. (시편 56:8)

이 이야기를 우리의 소망과 상처 그리고 좌절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주님의 초대장으로 생각하라.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2. 인내하고 신뢰하라

한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듣질 않으시니 잊어버리자"고 혼자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매년 희생 제사를 드렸다. 어떠한 열매나 이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해 왔던 것이다.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꿈꿔왔던 직업이나 결혼 또는 아이를 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일에 지금 당장 뛰어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

른 타고난 재능과 재주를 주셨다. 이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사용하자!

3. 당신의 인식을 전환하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한나의 남편이 그녀에게 자신이 열 아들보다 더 좋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는 참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한나에게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축복해준 남편이 있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그녀의 영혼이 그렇게 비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셨다(데살로니가전서 5:18). 이번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난 계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세

어 보라. 당신은 하나님이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시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당신의 동기를 생각하라!

나는 이 생각을 하면 상기된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 한나는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의 모든 과정을 겪은 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려 했다. 한나는 아이가 놀면서 쏟아내는 그 나이 때의 상상력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젊은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아이가 겪는 중요한 사건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왜 결혼이 하고 싶은가? 또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솔직하게 비춰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양보하고 싶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신혼여행 이후의 현실적인 결혼생활보다 이국적인 장소에서 치르는 결혼식만을 꿈꿔온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또는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결혼이 하고 싶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 고독을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처음에는 건강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혼 자체가 행복과 성취를 이루는 길이라는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 스스로를 비춰 봤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신다면 회개해야 한다. 우리

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보다 그 선물을 더 소망해서는 안 된다.

5.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

한나가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간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순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주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실망감을 하나님과 나누어도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 (로마서 8:28).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한 세밀한 부분에 맞게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와 완벽한 맞춤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부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장 3절)

마틴 로이드 존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오는 것은 이 첫 번째 복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팔복에는 매우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 논리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반드시 팔복의 첫머리에 와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시민의 기본 특징이 되기 때문이며, 그 외의 모든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옛 술을 따라버리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옛 술로 아직 채워져 있는 병에 새 술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고, '죄인인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신성의 대권을 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여기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사람처럼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나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고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에게 절대 의존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께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나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떤 것들을 즐겨 생각하는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가를 살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스스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